

동아시아문화도시

3개 도시 간 대규모 문화 교류사업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2012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한중일 3국 정부가 각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문화도시 또는 문화예술 발전을 목표로 하는 도시를 하나씩 선정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및 3개 도시 간 교류 행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내 상호이해와 연대감 형성을 촉진하고 역내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행사례로 유럽연합(EU)과 아세안(ASEAN)에서 각각 1985년과 2008년부터 실시한 ‘유럽문화수도’와 ‘아세안 문화도시’ 사업이 있다.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들은 각 도시의 문화적 개성을 살리고 문화예술, 크리에이티브 산업 및 관광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도시들은 해당연도가 지난 이후에도 한중일 문화교류 및 청소년교류를 계속해서 추진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각국 내에서 다른 연도의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를 강화하고, 아세안 문화도시 및 유럽문화수도와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고 있다.



한중일 도시 간 트라이앵글 교류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이 순조롭게 지속될 경우, 매년 1개씩 새로운 교류 도시 그룹이 추가되기 때문에 한중일 국민들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동아시아문화도시

연도	한국	중국	일본
2014년	광주광역시	취안저우시	요코하마시*
2015년	청주시	칭다오시*	니가타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닝보시	나라시
2017년	대구광역시	창사시	교토시*
2018년	부산광역시	하얼빈시*	가나자와시
2019년	인천광역시*	시안시	도쿄도 도시마구
2020년	순천시	양저우시	기타큐슈시*

(*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지)

이미지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 로고

제공
위에서부터 일본 기타큐슈시,
중국 양저우시, 한국 순천시

▶ 사진
 '2019 동아시아문화도시'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출처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동아시아문화도시, 2014년 이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지로 기여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한중일 3국이 문화 협력 및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정부 간 회의로 문화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출범 이후 개최국의 당해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다음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식이 개최된다. 2020년에는 일본의 기타큐슈시에서 제1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2014년 이후 개최실적

회차	일시	개최지	결과문서
제6회	2014년 11월 29일	요코하마시	「요코하마 공동 성명」
제7회	2015년 12월 19-20일	칭다오시	「칭다오액션플랜」
제8회	2016년 8월 27-2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선언」
제9회	2017년 8월 25-26일	교토시	「교토선언」
제10회	2018년 8월 29-31일	하얼빈시	「하얼빈선언」
제11회	2019년 8월 29-30일	인천광역시	「인천 선언」
제12회	2020년[미정]	기타큐슈시	



▲ 사진
 동아시아문화도시 원탁회의

 제공
 닝보시



▲ 사진
 동아시아문화도시 우호비

 제공
 닝보시

2016년 12월: 닝보 주최 '동아시아문화도시 원탁회의'

닝보시는 2016년 12월 7일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1년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폐막식과 연계하여 '동아시아문화도시 원탁회의'를 개최하였다.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인 제주도와 나라시를 비롯하여 중국 문화여유부(당시 문화부), 역대 문화도시인 광주광역시(2014년), 청주시(2015년), 대구광역시(2017년), 취안저우시(2014년), 칭다오시(2015년), 창사시(2017년) 대표 등이 참여하였다.

각 도시 대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이 도시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역할과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와 협력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 닝보 제안」에 서명했다. 또한 2014~2017년 12개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이름을 한중일 언어로 새긴 동아시아문화도시 우호비 제막식이 함께 개최되었다.

▶ 사진
동아시아문화도시 서밋



▶ 제공
교토시

▶ 사진
「동아시아문화도시 서밋
교토선언문」 서명식



▶ 제공
교토시

2017년 8월: 교토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서밋’ 개최

2017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인 교토시는 2017년 8월 26일 국립교토국제회의장에서 일본 문화청의 지원으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서밋’을 개최했다. 2014~2018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아세안 문화도시 등에서 19명의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도시의 문화도시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채택된 「동아시아문화도시 서밋 교토선언문」 내용에는 ▲젊은 세대를 비롯한 단체·기업 간 폭넓은 문화교류 기회 창출, ▲각국 정부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 강화, ▲아세안 문화도시와의 연계를 감안한 동아시아문화도시 서밋 정기개최 등이 포함됐다.

참여국가	참여 문화도시(선정년도)/아세안 국가
한국	광주광역시(2014), 청주시(2015), 제주특별자치도(2016), 대구광역시(2017), 부산광역시(2018)
중국	취안저우시(2014), 칭다오시(2015), 닝보시(2016), 창사시(2017), 하얼빈시(2018)
일본	요코하마시(2014), 니가타시(2015), 나라시(2016), 교토시(2017, 주최도시), 가나자와시(2018)
아세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 사진
아세안+3(APT) 문화도시
네트워크 발대식 기념 단체사진

출처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2019년 10월: 중국 양저우시 '아세안+3 문화도시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중국 양저우시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아세안+3(APT) 문화도시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주최기관인 중국 문화여유부를 비롯해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아세안 문화도시 대표단, 각국 관련 부처 관계자 각 도시 대표들은 APT 문화도시 네트워크 설립을 선포하고, ▲상호이해와 신뢰 제고, ▲문화교류협력 촉진, ▲관광산업 협력 강화, ▲청소년 교류 증진 등에 합의했다.

2019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발전을 위한 각국 내 문화도시 간 연대 강화 노력



◀ 사진
중국 '동아시아문화도시
업무훈련프로그램'

제공
중국 문화여유부

중국 '동아시아문화도시 업무훈련프로그램'

2019년 8월 13~14일 2019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인 중국 시안시에서 최초의 중국 동아시아문화도시 업무훈련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문화여유부가 주최하였으며, 2014~2019년 역대 중국 문화도시와 2020년 선정도시인 양저우시, 2019년 한·일 축 문화도시인 인천광역시와 일본 도쿄도 도시마구 대표단, 문화부처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도시들은 사업 운영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공유하였다. 또한 <‘동아시아문화도시’ 신청, 검수, 선정 및 관리 실행방안>, <‘동아시아문화도시’ 신청조건 및 평가기준>, 동아시아문화도시 브랜드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등에 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되었다.

▶
사진
2019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
협력 워크숍

출처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한국 '2019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 협력 워크숍'

한국측 초대 동아시아문화도시인 광주광역시(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는 2019년 12월 10-11일 양일간 2019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한국 동아시아문화도시 실무진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류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3국의 여건 변화에 대한 문화도시 간 연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처음 개최되었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한국의 5개 동아시아문화도시(청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및 순천시),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등 관련기관에서 15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